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3일 (음력 11월 28일) 목요일

21대 총선 D-15개월 광주·전남 정가 '긴장'

민주, 의석 증가 영토 확장…평화당과 합당 찬성 52% 그쳐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시 소수 야당에 유리…파장 예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석 18석 가운데 절반인 9석을 민주평화당이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의석은 민주당 4석, 바른미래당 4석, 자유한국당 1석 등이다. 야당이 78%를 차지, 의석 수만 놓고 보면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뚜렷하다.

광주는 8석 가운데 평화당 4석, 바른미래당 3석, 민주당 1석으로 서구갑 송갑석 의원만 '나홀로 여당'이다. 전남 역시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무소속 지대에 남은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연말 민주당에 전격 입당하면서 여당이 2석으로 늘긴 했지만, 평화당 5석에 바른미래당 1석, 자유한국당 1석 등 여전히 야당이 숫적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4월 국민의당이 녹색돌풍에 힘입어 광주·전남 18석 중 16석을 쓸어 담으며 '호남 맹주'를 자부할 당시와 비교하면 야권의 세력이 눈에 띄게 분산·약화된 셈이다.

탈당설이 꾸준히 제기돼온 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갑)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의 여당행이 현실화될 경우 힘의 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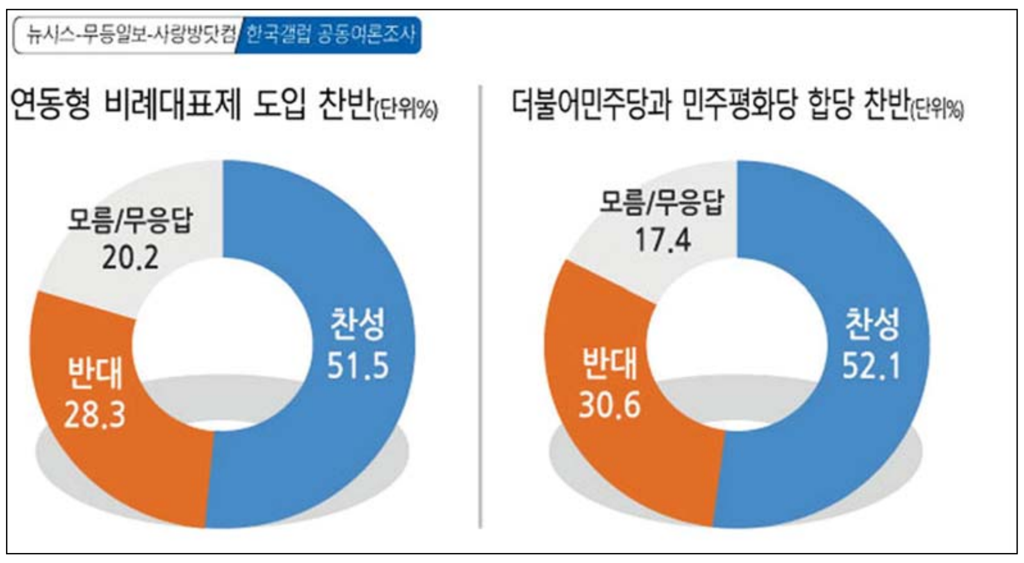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평화당의 당 대 당 합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우선 손 의원 등의 민주당 입당에 대한 평화당의 즉각적인 반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배를 갈아탄 의원들에 대해서는 "집권당의 품을 향해 손짓한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작심 비판하고, 집권 여당에 대해선 "개혁연대를 만들어 협치를 하진 못할 망정 작심하고 판을 깨는 처사"라고 강도높은 양비론을 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수 야당들이 사활을 걸고 있어, 시점상 합당을 논의하기도 적절히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도 썩 호의적이진 않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무등일보, 사랑방닷컴이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해 12월27~28일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5.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민주당과 평화당 합당에 대한 찬성률은 52.1%에 그쳤다. 중론(重論)으로 보기엔 한참 부족하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 자유한국당이 영토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양당체제가 가속화되면서 범민주당, 범한국당 인사들의 개별입당, 더 크게는 합당도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민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년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이 58.4%로, 2위 정의당(9.7%), 3위 평화당(4.1%), 4위 바른미래당(3.7%)을 크게 앞질렀고 평화당은 광주·전남에서 제1당임에도 정의당에 밀려 3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전국 지지율이 조기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추세가 올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민주당 대 반(反) 민주당 전선이 형성되고, 바른미래당 내 옛 국민의당 세력과 평화당이 제3지대에서 베이스캠프를 구축해 민주당과 한 판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변수이자 관심사다. 전체 국회의석(현재 300석)을 정당별 총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다음 각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들로 채우는 방식으로 전국 단위, 권역별 모두 소수 야당에 유리한 선거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승자독식주의와 사표(死票)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53.3%, 전남에서 47.7%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수는 광주 8석 모두 싹쓸이, 전남 10석 중 8석을 쓸어 담으면서 30% 안팎의 득표율을 얻은 민주당은 달랑 1석만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현재의 광주·전남 정당지지율을 지역구 후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산입하면 민주당 싹쓸이는 불가능하고, 최소 4~5석을 야당에서 차지할 개연성이 높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추이와 야권에 대한 지역민심,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수당의 움직임 등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특히 초선 의원들이 많은 광주와 전남의 경우 민심마저 호의적이지 않아 지역정가가 어떤 식으로든 요동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뉴시스

Photo 漫評

흑돈백돈(黑豚白豚)

새해 첫날인 1일 여권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내부 결속' 의지를 다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3년 차는 아주 중요한 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황금돼지해라고 부르는데, 저는 검은 돼지든 흰 돼지든 무게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흑돈백돈(黑豚白豚)론'을 펼쳤다.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을 차용해 올해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의장은 "황금으로 누런 돼지라고 하면 이건 정말 대박"이라며 "번영의 돼지해에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고 우리도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문희상

나경원

문희상

신년사

"노동존중 사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

이 신 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노총 전남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에도 조합원동지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만족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느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길 기대했으나 생각 같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상승 속에서도 처벌 유예 등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제도들은 표류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를 논의하며 우리를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도 죽음의 외주화 속에 젊은 청춘들의 희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했던 사회적 대화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여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노동을 경제발전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어두운 역사와 단절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화합으로 이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2019년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더 낮고 더 깊게 현장과 호흡하는 조직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현장을 향한 눈과 귀를 더 크게 열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도 한국노총 전남본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겠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남지역 노동자들과 도민 모두의 행복으로 가득찬 2019년 기해년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솔직하고 동정심 많은 돼지의 특성처럼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서민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한국노총 전남본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잘사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